

# 영암군 덕진면, 정례회의 개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로 열려

### 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 후 시찰



영암군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소외계층 주거 내부환경개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덕진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덕진면사무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

회의에서 지역특화사업 대상기구를 선정하였다.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 보관이 어렵고 약취 심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좁은 부엌으로 수납장이 필요한 가구 2곳을 선정하여 11월 중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냉장고와 수납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덕진면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간결화를 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중 영암군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참석계획, 선진지 견학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회의 후에는 매월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 반찬지원 서비스 활동으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추운 겨울 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를 살폈다.

신용현 면장과 설순옥 위원장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진면 저소득층은 금년 한 해 동안 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 도매와 정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반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농어촌공 보성지사, 농업인단체장 2명 명예지사장 위촉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는 지난 12일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소통경영을 위하여 한국농업경영인과 한국농촌지도자 보성지역 2개 농업인단체장을 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

보성지사는 최병연 한농연 보성지회장, 임철모 농촌지도자연합회 보성군지회장에 위촉장 및 공사샷지, 명함을 수여하였다.

이날 명예지사장은 지사 주요 업무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사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원식 지사장은 “명예지사장

들의 공사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를 전하며,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기업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을 쏟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연 명예지사장은 “가뭄시 퇴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고, 권역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성=안규일 기자

# 완도군,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 전략 마련

### 11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심포지엄 개최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관련 분야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하는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 전략’ 심포지엄이 오는 11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서남해안 미 개설 구간 연결 및 연륙·연도교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윤영일 국회의원과 서상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완도군과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

부, 전라남도 후원으로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신용철 완도군수의 ‘도서지역의 연륙·연도교 왜 필요한가?’,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의 ‘약산 당목·금일 일정 간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한국글로벌발전재단 신순호 이사장을 좌장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심포지엄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방향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남해안관광도로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고흥 금산에서 완도 고급의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국도 기점 변경은 물론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전라남도, 지역민 등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협력하여 본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엘로우시티 장성, 노란꽃잔치로 브랜드 가치 ‘급상승’

### 짧아진 시간에도 누적 방문객 수 100만 넘어

### 그늘막 씬터 조성, 주차장 확보 등 흥행 요소 기여

지난 10월에 열렸던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폐막 한 달이 가까웠음에도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어 주목된다.

10월 13일 막을 내린 노란꽃잔치는 올해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인해 개막일이 연기되며 9일간 개최됐다. 지난해까지 2주씩 운영되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5일이나 단축된 셈이다.

그러나 짧아진 기간은 축제의 흥행과 무관했다. 폐막일 다음날 집계한 올해 노란꽃잔치의 누적 방문기록은 100만을 훌쩍 넘어 있었다(총 10만 2,986). 황룡강 3.2km 구간에서 핀 10억 송이 가을꽃과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황미트랜드의 100만 송이 해바라기 정원, 그리고 세 계적인 정원을 재현해 놓은 유엔

아이(YOU & I) 가든과 드레스가든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 점이 축제의 흥행요소로 꼽혔다.

그밖에 영무새특별체험관과 같은 이색적인 체험부스 운영과 관람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꽃길 동선·그늘막 씬터 조성, 주차장 확보 및 인근 도로 확·포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 엄선된 음식부스 마련 등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축제장에서 사용된 장성사랑상품권은 각종 할인혜택은 물론 장성군에 등록된 1,000여 개 점포에서 향후 5년 간 사용이 가능해 인기가 높았으며, 관광객들이 장성에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장성군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서만 2억 6천만여 원의 상품권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기간 중에는 KTX 이용객도 급증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장성역에는 하루 4회 서대전을 경유하는 목포~서울 간 KTX 노선이 경유를 시작했는데, 축제기간 동안 평상시 대비 17% 가량 KTX 승객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축제기간 주말에는 351% 증가를 기록하기도 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란꽃잔치의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상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장성군은 한류문화산업진흥원과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주관으로 국회 본관 귀빈실에서 열린 ‘제3회 도전! 대한민국 내고향명품축제 시상’에서 내고향명품축제 대상을 수상했다. 세 번의 가을 태풍에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는 방문을 기록하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성=박종영 기자

# 신안군에서 한국 춘란 업체품 전국대회 열린다



신안군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004섬 신안군에서 한국 춘란 희귀 업체품들이 각각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 신안군민체육관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천사대교를 기념하고 아름다운 춘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난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꽃이 아닌 춘란 자체의 잎을 감상하는 업체전시회는 (사)대한민

국자생란협회가 주최하고 신안군이 후원하는 업체대전으로 1천여 업체품이 전시되며, 난판매전과 신안 우수농산물 판매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신안군은 난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춘란전시회를 11회 추진해왔으며 “보름달”, “천운소” 등 명품난이 출품되어 우수한 생물관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자생란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 박우량군수는 우수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신안의 난을 테마로 한 “난박물관, 전시관, 생태공원” 등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